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f Married Immigrant Women on Marriage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 수 박 현 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최 미 영**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강 사 이 옥 진***

Department of Elderly Welfare, Hoseo Univ.

Professor Park, Hyun-Si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National Open Univ.

Professor Choi, Mi-Young

Department of Elderly Welfare, Hoseo Univ.

Instructor Rhee, Ok-Jin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III. 연구방법

IV. 결과 분석

V. 논의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relation to marriage satisfaction and the social support of immigrant women. The research data for the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those who us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Siheung of Gyeonggi-do and Ansan from September 30 to October 21, 2017, and a total of 223 people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e analysis methods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rough

* 주저자: 박현식(psh7922@hoseo.edu)

** 교신저자: 최미영(ilove66@knou.ac.kr)

*** 공동저자: 이옥진(hamburg26@nate.com)

frequency analysis and technical statistics, an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mediator effects. The statistical program used SPSS 22.0.

The analysis showed that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arital satisfaction. In addition, self - efficac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upport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marital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to improve marriag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Key Words : 결혼이주여성(Married Immigrant Women),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결혼만족도(Marriage Satisfaction), 자기효능감(Self-Efficacy)

I. 서론

그동안 단일민족과 순수혈통을 주장해왔던 우리 사회는 이제 다문화사회와 다민족사회로서 상당한 변화를 겪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증가는 우리가 새롭게 수용하고 통합해야 하는 변화이자 과제가 되었다.

한국사회 다문화로의 변화에 대한 핵심적 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이슈와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한 초혼연령의 상승, 독신미혼 여성의 증가에 따른 만혼화 현상,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감소, 그리고 결혼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한 농촌과 도시 저소득층 남성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김유경, 2009: 29-30) 등이 거론된 바 있다.

국제결혼 비율은 2005년에 13.5%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수는 2009년 56,205명에서 2015년 147,382명(8.5%)에 이르고 있다(행정자치부, 2016). 2016년 현재 평균 10%의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2050년경이면 8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산동 외, 2017: 35).

우리사회로의 타민족 이주는 1990년대 초 본격화되었다. 주로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고(김유경, 2009), 결혼을 통해 혼인이주를 하게 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의 많은 문제들이 결혼

생활적응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169-170; 현경자·김연수, 2012; 김순옥·김현숙, 2016; 송태연, 2017).

결혼만족도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 만족과 기쁨의 주관적 감정’이며(송태연, 2017: 16), 결혼의 지속성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으로 인해 파생된 여러 관계들과 관련되며, 결혼만족도가 높지 않은 가정에서는 부부는 물론 이들의 양가 부모, 부부의 자녀의 행복과 삶의 질까지 좌우할 수 있다(김순옥·김현숙, 2016: 463). 따라서 결혼만족도는 전체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서 중요시되어야 하며,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결혼이주라는 특성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국가로 이주하여 새롭게 정착하면서 홀로 적응해 가면서 겪는 소외감, 혼란, 스트레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와 같은 자원이 중요하다고 본다(현경자·김연수, 2012: 654). 사회적 지지는 대체로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은 가족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한다(강기정·정천석, 2009; 나동석·박종인, 2009; 채옥희·한은진·송복희, 2012)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강기정·정천석, 2009; 나동석·박종인, 2009; 채옥희 외, 2012)

에 이의가 적은 편이나, 사회적 지지만으로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라도 결혼만족도 또한 높지 않을 수 있으며(신유경·장진경, 2010), 일부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지지를 자원으로 갖추었음에도 결혼만족도가 낮을 수 있었다(송복희, 2012). 여기에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달라지게 할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았고, 한국 사회에 유입된 결혼이주여성의 낮은 자기효능감 특성을 언급한 연구들(김미영, 2017; 김진·이종운·김영숙, 2015: 83)에 주목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 향상 필요성을 결혼만족도 면에서 논의하려 하였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은 규명하였으나, 이러한 요인을 둘러싼 여러 변수들 간 메커니즘 규명에 나선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상당수 축적되어 메타분석 연구가 실시되었으나(이은주·전미경, 2014; 김미정·염동문, 2015), 여전히 결혼만족도 관련 영향요인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규명하지는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김미정·염동문, 2015).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낮은 자기효능감 특성에 의해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 간 메커니즘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착안,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가족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실천적, 정책적 접근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주는 영향

결혼이주여성은 대체로 국제결혼이주여성,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용어와 혼용 중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결혼이민자”라고 한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 1은 결혼이민(F-6)을 두어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상 뿐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자,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결혼이민”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중 여성으로서 대한민국 남성과 법률상 혼인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귀화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모두 포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여성을 의미한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결혼만족도란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의 극복을 돕는 자원으로 서 한국사회 적응과 자녀 양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결혼만족도가 자신의 결혼생활에 있어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인지, 만족, 선호도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창운, 2017: 23; 송태연, 2017: 15).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이 자국 출신의 친한 친구로부터 얻는 지지는 결혼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Proulx et al., 2009: 201), 한국인 친구나 이웃, 지역공동체와 같은 주요 타자들도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적 지지원이 되고 있다

(공미혜 · 오세자, 2010: 104). 사회적 지지는 본래 개인에게 사랑과 돌봄이 주어지고,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외부와 의사소통, 상호협력(Obligation)하는 연결망을 의미한다(Cobb, 1976: 300). 결혼이주 여성은 원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고, 새로운 문화나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지지(남인숙 · 안숙희, 2011: 102)와 시댁 부모 및 가족의 지지(김순옥 · 임현숙 · 정구철, 2015: 255)가 매우 중요한 결혼 적응 요인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우선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수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검증되어야 한다.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있어서 만족하는 수준으로, 결혼적응도, 결혼행복도, 결혼성공도, 결혼의 질, 부부관계만족도 등 연구마다 다른 정의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정의정 · 하규수, 2012: 224).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메타분석한 연구(김미정 · 염동문, 2015: 16)는 가족지지, 가족 아닌 친구, 의미 있는 타자 등 가족외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지님을 분석하고, 가족지지의 영향력이 가족외지지의 영향력보다 더 크다는 점을 밝혔다.

이 외에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한 연구들이 상당수 나타났다(공미혜 · 오세자, 2010: 113; 김순연, 2012: 90; 이혜경 · 전혜인, 2013: 426). 특히 공미혜와 오세자(2010)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국제결혼 부부 중 아내의 결혼만족도만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나머지 두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에 문화적 요인, 사회적 지지 요인, 관계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보다 큰 영향을 미치며(김순연, 2012), 사회적 지지의 구체적 내용으로 친구와 가족, 의미 있는 주변인의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이혜경 · 전혜인, 2013).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위한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은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되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결혼만족도의 관계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과 확신으로서(김미영, 2017: 37), 개인의 목표와 성취욕, 예상 결과, 결과 성취를 위한 절차, 사회 환경 속 자원 등의 인지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의 기능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andura, 2000: 75). Bandura는 자기효능감을 도전의식, 문제해결력 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어려움 극복에 대한 대처, 일상수행능력에 대한 확신, 업무수행에 대한 자신감, 일에 대한 상황 판단력 등 특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신념 등 세부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가능케 되는 능력이며, 가족, 이웃, 사회적 관계 등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찾아가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라 볼 수 있다(김진 외, 2015: 83).

결혼이주여성은 언어나 문화차이로 인한 가족간 갈등, 지역사회 및 한국사회 부적응 위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적응과 같은 실패 경험은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반복되는 실패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낮게 만든다(Bandura, 1977: 198).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 내에 축적된 사회적 자본이나 사회적 지지가 충분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자기효능감과 같이 개인적으로 지닌 심리적 자원이 적극 동원될 수밖에 없다(김진 외, 2015: 80).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 내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성공경험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김

미영, 2017: 42).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부모의 무조건적 동화 요구는 결혼이주여성을 힘들게 하고,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무시당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상실하지만, 이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한다(계선자·강혜경·정미선, 2009; 송복희, 2012; 이애련, 2010; 채옥희 외, 2012).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도전에 성공경험이 더해질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아질 것이며, 결혼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적은 편이며, 특히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함께 결혼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 연구는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그러나 결혼만족도를 포괄한 생활만족도에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김미영, 2017), 결혼만족도가 궁극적으로 반영되는 삶의 질에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관련됨을 보고한 연구(유은광·김혜진·김명희, 2012)가 있다. 이들은 비록 자기효능감과 결혼만족도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하나, 자기효능감과 결혼만족도가 어느 정도 연관되리라고 예측케 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과 유사한 사회 비주류 대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주로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성인중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양정빈·이종환, 2011: 240)는 사회적 지지 중 가족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정아·김인경, 2011: 59)도 유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아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를 보이면서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면 자기효능감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도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를 직접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 사회적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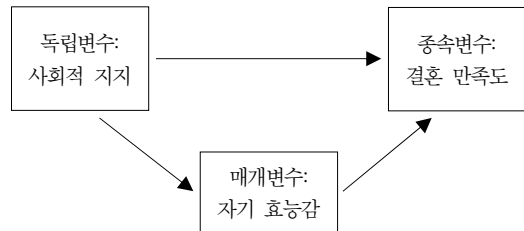
가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즉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자기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려진 연령, 학력, 종교유무, 직업유무, 가구 총 월 소득(김미정·염동문, 2015; 이은주·전미경, 2014)을 통제변수로 선정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자기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여 관련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려 한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측면에 영향을 주어 이들의 결혼만족도까지 이어지는지 분석하고자, 관련연구의 고찰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또한 기존의 관련 연구들(김미정·염동문, 2015; 서홍란·정한나, 2010)을 참고로 하여 연령, 학력, 종교유무, 직업유무, 가구 총 월 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통제변수 : 연령, 학력, 종교 유무, 직업 유무, 가구 총 월 소득)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을 거쳐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도 시흥, 안산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 중인 결혼이주여성 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방법은 임의 표집이며,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이루어졌다. 위 기간 동안 설문조사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1:1로 면접하였다.

면접조사 중 한국어능력부족으로 설문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34)

특성	구분	빈도	비율 (%)	특성	구분	빈도	비율 (%)
연령	20대	86	36.8	종교	종교 유	119	50.9
	30대	99	42.3		종교 무	115	49.1
	40대	34	14.5	직업	직업 유	123	52.6
	50대	15	6.4		직업 무	111	47.4
학력	초졸 이하	7	3.0	가구 총 월 소득	200만원 미만	24	10.3
	중졸	55	23.5		-300만원 미만	88	37.6
	고졸	119	50.9	소득	-400만원 미만	76	32.5
					-400원 이상	46	19.7
	대졸 이상	51	21.8	한국 거주 기간	4년이하	74	31.6
					5년-9년 이하	94	40.2
10년-14년이하					46	19.6	
	2	.9		15년이상	20	8.6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도구의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1) 독립변수: 사회적 지지

본 조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 척도는 임수진(2010)이 번안하고, 이훈(2016)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세 하위영역은 가족지지(4문항), 친구 이외에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감정, 위로를 주는 관계인 의미 있는 타자 지지(4문항), 친구지지(4문항)로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요인분석 결과, 가족지지(4문항)와 친구 및 의미 있는 타자지지(8문항)라는 두 요인으로 시사되었다. 그리하여 가족지지(4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α 값은 .915였고, 친구 및 의미 있는 타자지지(8문항)은 Cronbach α 값이 .950으로 나타났다. 이정희(2013)와 이훈(2016)에서는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가 .93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953으로 나타났다.

2) 매개변수 : 자기효능감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그 하위 영역으로는 도전의식, 문제해결력 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어려움 극복에 대한 대처, 일상수행능력에 대한 확신, 업무수행에 대한 자신감, 일에 대한 상황 판단력 등 특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신념으로 구성되었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에 대한 척도는 7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 α 값은 .926으로 나타났다.

3) 종속변수 :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에 대한 척도는 김희숙(2011)이 사용한 척도를 원용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표 2〉 조사도구의 구성

측정 요인		측 정 항 목	신뢰도
일반적 특성		연령, 학력, 종교 유무, 직업 유무, 가구 총 월소득	
독립 변수 -사회적 지지	친구 및 의미 있는 타자지지	문 1) 내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 문 2) 나는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문 5) 나에게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문 6) 나의 친구들은 나를 도우려고 노력한다. 문 7)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는 내 친구들을 의지할 수 있다. 문9) 나는 슬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문10) 내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는 사람이 있다. 문12) 나는 나의 문제들에 대해 친구들과 상의할 수 있다.	.953
	가족지지	문 3) 나의 가족은 나를 도우려 한다. 문 4) 나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문 8) 나는 가족들과 내 문제들을 상의할 수 있다. 문11) 나의 가족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 결정할 때 기꺼이 도와준다.	
매개 변수 -자기효능감		문 1)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하지 않고 도전한다. 문 2) 나는 복잡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시도를 하는 편이다. 문 3) 나는 어떤 일일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문 4) 나는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더라도 일단 배우려고 하는 편이다. 문 5)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잘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 6)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할 자신이 있다. 문 7) 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해 상황판단을 잘 하는 편이다.	.926
종속 변수 -결혼만족도		문 1) 우리 부부는 가사를 분담하는 정도에 만족한다. 문 2) 우리 부부는 자녀를 키우는 방식에 만족한다. 문 3) 우리 부부는 사회적 활동(취미활동)에 만족한다. 문 4) 우리 부부는 가족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문 5) 우리 부부는 생활비 관리에 대해 만족한다. 문 6) 우리 부부는 대화하는 방식에 만족한다. 문 7) 우리 부부는 성관계에 만족한다. 문 8) 우리 부부는 서로 배우자의 가족들을 잘 배려해준다. 문 9) 우리부부는 전반적으로 부부생활에 만족한다. 문10) 우리 부부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	.928

사분담 정도, 자녀양육방식, 사회적 활동(취미활동), 가족수입, 생활비관리, 대화하는 방식, 성관계, 원가족과의 관계, 전반적 부부생활 만족 등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α 값이 .928로 김희숙(2011)의 .92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령, 학력, 종교 유무, 직업 유무, 가구 총 월 소득을 가지고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조사대상자의 주요 변수인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값은 다음 <표 3>과 같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평균값은 5점 만점에 3.71점(SD=0.802)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결혼만족도는 각각 5점 만점에 3.58점(SD=0.778), 3.18점(SD=0.735)으로 보통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N=234)

구분	범주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독립변수	사회적 지지	1	5	3.71	.802	-.522	-.016
매개변수	자기효능감	1	5	3.58	.778	.033	.153
종속변수	결혼만족도	1	5	3.18	.735	-.018	.477

각 변수들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측정변수들의 왜도 값은 -.018에서 -.522로 절대값이 1이하이고, 첨도 값은 .016에서 .477로 절대값이 7이하이므로 정규성분포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5.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검증

본 연구모형에 투입한 변수간 다중공선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평균값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r=0.534, p<.001$),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는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과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396, r=.356, p<.001$). 또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만족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각각의 분산팽창인자(VIF)계수를 살펴본 결과, 1.049에서 1.453까지 2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위

험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 변수별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사회적 지지	1.000		
자기효능감	.534***	1.000	
결혼만족도	.396***	.356***	1.000

$p < 0.1, **p < 0.05, ***p < 0.01$

주: (1) 사회적 지지 (2) 자기효능감 (3) 결혼만족도

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 Statistic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결과 분석

1. 결혼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영향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 1>은 연령을 비롯한 통제변수만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모형 1>의 F값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F=4.303, p<.001$)이 검증되었고, 모형의 설명력 R^2 값은 0.088이었다. <모형 1>에서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 변수는 학력과 가구 총월소득으로, 학력이 높을수록($\beta=.171, p<.01$), 가구

〈표 5〉 각 독립변수와 결혼만족도 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독립-종속)		모형 2 (독립-매개)		모형 3 (독립-매개-종속)		
	B	β	B	β	B	β	
(상수)	2,511		1,595		1,326		
연령	.007	.076	.002	.019	.001	.010	
일반적 특성	학력(고졸이상=1, 중졸이하=0)	.281	.171**	.207	.126*	.204	.124*
종교(있음=1, 없음=0)	.024	.017	.014	.010	-.002	-.001	
직업(있음=1, 없음=0)	-.157	-.107	-.135	-.092	-.169	-.116*	
가구 총 월소득	.001	.160*	.001	.131*	.001	.120*	
사회적 지지			.321	.351***	.221	.242***	
자기효능감					.199	.213**	
Durbin-Watson						2.074	
R ² (Adj-R ²)	.088(.067)		.203(.182)		.235(.210)		
F	4.303***		9.465***		9.717***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수: 결혼 만족도

총 월소득이 많을수록($\beta = .160$, $p < .05$)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F값 변화량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F = 9.465$, $p < .001$), 사회적 지지가 추가되어 설명된 결혼만족도의 변량이 20.3%로 이전 모델에 비해 약 12%정도 증가한 가운데, 통제변수 이외에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beta = .351$, $p < .001$)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모형 2〉에 자기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모형 3〉의 설명력($R^2 = 0.235$)은 〈모형 2〉보다 3.2% 증가했다. 통제변수 중에는 학력이 높을수록($\beta = .124$, $p < .05$), 직업이 없을수록($\beta = -.116$, $p < .05$), 가구 총 월소득이 많을수록($\beta = .120$, $p < .05$)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beta = .242$, $p < .001$),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beta = .213$, $p < .001$)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4단계 매개회귀분석 기법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론에 의거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첫 번째 단계(독립변수→매개변수)에서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05$, $p < .001$). 두 번째 단계로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결혼만족도에 통계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21$, $p < .001$). 세 번째 단계로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beta = .221$, $p < .001$)와 자기효능감($\beta = .199$, $p < .003$)은 결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β 값과 세 번째 β 값을 Baron과

〈표 6〉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매개 변수	독립 변수	종속변수 (결혼만족도)			매개조건(유의미성) 충족 여부			
		단계	β	Pr	β_1	β_2	β_3	$\beta_2) \beta_3$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1	.505(.056)	.000***	○			
		2	.321(.056)	.000***		○		
		3	.221(.065)	.001***			○	
		4	.199(.066)	.003**			○	
		4	.321 > .199				○	

* $p < .05$, ** $p < .01$, *** $p < .001$

Kenny가 제시한 방법론의 기준에 의거하여 비교해 본 결과, 두 번째 β 값이 더 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값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1982)이 제시한 검증(Z)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과 관련된 사이트를 활용하여 Sobel test(Z검증)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7)과 같다.

일반적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검증한계치인 1.96보다 절대값이 클 경우 매개효과모형이 유의하다고 판단한다(이상균, 2007: 31).

따라서 〈표 7〉의 결과와 같이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검증하였다.

〈표 7〉 가족지지-자기효능감-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Sobel 검증 결과

매개변수	매개 효과	Sobel test	
		Z	p
자기효능감	부분	2.8595	0.002

V.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의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의 영향 요인임을 입증한 선행연구(공미혜 · 오세자, 2010: 113; 이해경 · 전혜인, 2013: 426)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이은주 · 전미경, 2014: 33; 김미정 · 염동문, 2015: 16; 공미혜 · 오세자, 2010: 110)와 동일하게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원가족과 멀리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배우자와 그 가족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필수 자원이고, 배우자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을 때 안정되고 지속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공미혜 · 오세자, 2010: 114)을 지지하게 된다.

연구문제 2의 결과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함께 결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그동안 사회 비주류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는 있었으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매개효과 영향을 보이는지 분석한 연구는 부재하였는데, 이번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지니는 변수임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결혼이주여성 소속된 가족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및 문화이해 중심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라는 점은 결혼 전후로 다문화가족이 될 구성원들에게 서로의 문화와 언어, 의사소통 부족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특히 배우자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지니면서 부부간 상호신뢰와 이해가 증진될 때 안정적인 결혼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다양한 생활양식의 이해, 부부간의 대화 기술과 같은 다문화 가족지원프로그램, 결혼 직후 임신과 출산 및 육아 등의 부모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가정을 부부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출산기 건강 및 케어프로그램 지원 등이 요구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현지 사전교육은 간단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생활 소개로 이루어져, 한국에서의 결혼생활동안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우므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가 서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은 방문 가족교육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국가 및 지역사회는 이러한 방문교육의 내용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적 지지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효과도 확인되었는데, 이에 지역사회와 국가는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에 보다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 향상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는 것도 필요한데, 결혼이주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고 성공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부족한 사회적 지지를 효과적으로 보완, 대체해 줄 수 있는 지지체계로서, 다문화가족의 생활주기단계별로 필요한 양질의 교육적 지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나오지 못하는 농촌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교육적 지지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 도우미 지지, 물질적 지지에서도 수요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므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회적 지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역사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자기효능감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짧은 시간 내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 교류 없이 경제적 문제 해결, 한국인 남성의 생활력에 대한 기대로 결혼을 결정하지만, 실제적인 경제생활에서 의사소통문제, 생활문화차이, 경제적인 현실의 차이, 가부장적 태도, 가사분담 문제, 모국으로 경제적 지원 등 결혼생활에 많은 부적응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일자리를 얻고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효능감을 제고하고, 가족 외에도 친구 및 이웃 등과 사회적 지지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취업지원 교육, 취업 정보 제공 및 정보 접근성 향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는 더욱 다양화 된 분석으로 확대, 심화된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몇 가지 한계점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 중 현재 가족지지, 친구 및 의미 있는 타자지지의 유형에서 더 나아가 도구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등까지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사회적 지지 별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연구모형에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보다 정밀하게 매개효과 검증을 이루도록 한다.

끝으로, 가족자원경영의 이론 및 관점에서 다문화 가족지원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심도 있게 도출되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1) 강기정 · 정천석(2009). 다문화 가정의 가정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자원경영학회지, 13(2), 153-167.
- 2) 공미혜 · 오세자(2010). 국제결혼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2, 95-120.
- 3) 계선자 · 강혜경 · 정미선(2009). 다문화 가정의 결혼 생활에 관한 분석-용산구 다문화 가정 사례 연구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31-57.
- 4) 김미영(2017).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자기효능

감, 생활만족도를 위한 가정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김미정 · 염동문(2015).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과학연구, 31(3), 1-25.
- 6) 김순연(2012).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경제적, 관계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와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김순옥 · 김현숙(2016).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지지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6), 462-473.
- 8) 김순옥 · 임현숙 · 정구철(2015).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와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185-186.
- 9) 김유경(2009).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151(0), 29-52.
- 10) 김정아 · 김인경(2011).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1): 52-61
- 11) 김진 · 이종운 · 김영숙(2015).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입국위문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41(2), 79-103.
- 12) 김희숙(2011).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나동석 · 박종인(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과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1(4), 1-20.
- 14) 남인숙 · 안숙희(2011).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2): 99-108.
- 15)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2010).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경진.
- 16) 서홍란 · 정한나(2010). 경남지역 거주 국제결혼

- 한국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6(3), 27-48.
- 17) 송복희(2012). 아시아 지역 가정생활문화를 통해서 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적응전략.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송태연(2017). 결혼이주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허용성 및 자기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 신유경 · 장진경(2010).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본 베트남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3), 109-122.
 - 20) 양정빈 · 이종환(2011). 지역사회 성인중도장애인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재활동기 간의 인과관계 모형분석.
 - 21) 유은광 · 김혜진 · 김명희(2012).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2(2), 171-179.
 - 22) 이상균(2007). 사회복지연구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지리뷰, 12(0), 19-36.
 - 23) 이신동 · 김진호 · 이상희 · 이경숙 · 차재경 · 이영(2017). 다문화와 교사교육. 학지사.
 - 24) 이애련(2010).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 이해 및 적응에 관한 사례 연구-서울지역 어린이집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299-321.
 - 25) 이은주 · 전미경 (2014).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인 메타분석. 한국사회정책, 21(4), 9-44.
 - 26) 이정희(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이창운(2017).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중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8) 이혜경 · 전혜인(2013).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4), 413-432.
 - 29) 이훈(2016).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임수진(2010).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1) 정의정 · 하규수(2012).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의 이중문화스트레스,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2), 222-231.
 - 32) 채옥희 · 한은진 · 송복희(2012).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결혼동기와 한국가정생활 경험 및 지원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 (4), 111-129.
 - 33) 행정자치부(2016).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수.
 - 34) 현경자 · 김연수(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653-677.
 - 35) Bandura, A. (1977). A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s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36) Bandura, A. (2000). Exercise of human agency through collective efficac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3), 75-78.
 - 37) Baron, R. M. and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38)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 39) Proulx, C. M., Helms, H. M., Milardo, R. M., & Payne, C. C. (2009). Relational support from friends and wives' family relationships: The role of husbands' interfer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6(2-3), 195-210.
- 40)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투 고 일 : 2018년 08월 31일
- 심 사 일 : 2018년 09월 27일
- 게재 확정일 : 2018년 11월 21일